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3. 3. 2. (목) 11:00 3. 3. (금) 조간	배포 일시 2023. 3. 2.(목) 09:00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책임자 팀 장 남현수 (044-201-1531)	담당자 사무관 정성문 (044-201-1539)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연고지 귀농 경향 지속, 귀농 준비기간 단축 -

주요 내용

- (귀농귀촌 유형)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U형, 귀농 70.7%, 귀촌 37.8%)하는 경향 지속

* U형 귀농 증가세 : ('18) 53.0% → ('19) 54.4 → ('20) 57.6 → ('21) 67.6 → ('22) 70.7

□ (귀농귀촌 이유)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 순, 귀촌은 직장 취업, 자연환경, 정서적 여유 순

* 30대 이하 귀농 청년층은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1순위

□ (준비기간) 귀농 준비기간은 24.5개월, 귀촌은 15.7개월

* 준비기간 감소세 : ('18) 귀농 27.5개월 / 귀촌 21.2 → ('20) 25.8/17.7 → ('22) 24.5/15.7

□ (소득) 귀농, 귀촌 5년차의 연 평균 가구소득은 3,206만원, 4,045만원으로, 첫째 2,268만원, 3,521만원 대비 각각 41.4%, 14.9% 증가

□ (지출) 귀농귀촌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귀농 183만원, 귀촌 216만원, 귀농귀촌 전 265만원, 258만원과 비교해 각각 30.9%, 16.3% 감소

□ (경제활동) 귀농가구의 45.4%가 소득 증가 등을 위해 농외 경제활동 수행, 귀촌가구의 6.1%는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

□ (귀농귀촌 만족도)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가 농촌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 3가구는 보통, 불만족은 각각 2.3%, 1.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일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근거 :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조사기관/방식/기간 : (주)메트릭스 / 면접조사 / 2022년 10 ~ 12월

○ 조사대상 : 최근 5년간('17~'21) 귀농·귀촌한 6천가구(귀농·귀촌 각 3천가구)

* 전년도 11.1. ~ 당해연도 10.31. 기간동안 도시 지역에서 농촌(읍면)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 중 당해연도에 농업경영체·축산업등록부 등에 등록한 사람은 귀농인, 그 외는 귀촌인에 해당

※ 통계표 공표 :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수록('23년 3월말 예정)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다시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귀농귀촌 하는 U형 귀농귀촌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귀농의 경우 지난 2018년에 53%였던 U형은 지난해 조사에서 70.7%까지 증가했다.

둘째, 귀농귀촌 준비기간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다. 지난 2018년 조사에서 준비기간은 귀농의 경우 27.5개월, 귀촌은 21.2개월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4.5개월, 15.7개월로 조사되어 각각 3개월, 5.5개월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1순위를 차지했다.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귀농하는 50대 이상에 비해 청년들은 직업으로서의 농업을 선택한 결과라고 하겠다.

- 1 -

- 2 -

주요 항목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귀농귀촌 유형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지로 이주(U형)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귀농의 경우 2018년에는 10가구 중 5가구(53.0%)가 연고지로 이주하는 U형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가구(70.7%)에 달했다. 반면에 귀촌가구는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형이 점차 증가('18: 29.4% → '22: 34.6%)하고 있다.

②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2.4%),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21.0), 사업승계(20.0)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귀촌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22.6%), 자연환경(14.1), 정서적 여유(13.2) 순이었다.

귀농 이유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귀농 청년층은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33.4%)이 1순위, 50대 이상은 모두 자연환경이 1순위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③ 귀농 준비기간은 평균 24.5개월 소요되었으며, 귀촌은 15.7개월이었다. 준비기간에는 정착지역 및 주거·농지 탐색, 자금조달, 귀농귀촌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 준비기간은 조금씩 감소('18: 27.5개월 → '22: 24.5)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단계별 지원 정책 체계가 확충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④ 귀농가구의 50.0%, 귀촌가구의 5.7%가 농촌으로 이주하기 전에 귀농 귀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교육시간은 귀농 60.4시간, 귀촌 48시간이다.

⑤ 귀농귀촌 5년차의 연 평균 가구소득은 귀농 3,206만원, 귀촌 4,045만원으로, 귀농귀촌 첫째 2,268만원, 3,521만원과 비교하면 각각 41.4%, 14.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가구의 45.4%가 소득 증가, 재능 및 경력 활용 등을 위해 농외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귀촌가구의 6.1%는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귀농귀촌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귀농 183만원, 귀촌 216만원으로, 귀농귀촌 전 265만원, 258만원과 비교해 각각 30.9%, 16.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⑦ 귀농가구의 67.8%, 귀촌가구의 49.8%가 '지역주민과 관계가 좋다'고 응답했으며, '나쁘다'는 응답은 각각 2.3%, 1.9%였다. 주요 갈등 요인은 귀농은 '마을 공동시설 이용문제'(35.1%), 귀촌은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32.6%)로 조사되었다.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귀농 67.2%, 귀촌 67.4%)가 귀농귀촌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했으며, 3가구는 보통, 불만족은 각각 2.3%, 1.8%였다.

⑧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귀농귀촌 모두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제공(귀농 39.9%, 귀촌 39.8), 자금지원이라고 응답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귀농귀촌 관련 정보 제공 기능을 개선하고, 귀농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의 사전 준비와 안정적 정착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요약)

- (귀농귀촌 유형)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U형, 귀농 70.7%, 귀촌 37.8%)하는 경향 지속
 - * U형 귀농 증가세 : ('18) 53.0% → ('19) 54.4 → ('20) 57.6 → ('21) 67.6 → ('22) 70.7
- 귀촌은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 없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I형*이 증가세
 - * I형 귀촌 : ('18) 29.4% → ('19) 31.9 → ('20) 33.8 → ('21) 35.7 → ('22) 34.6
- ⇒ 이는, 귀농, 귀촌을 주도하는 연령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 귀농은 농촌 생활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50대 이상 가구가 76.7% 차지, 이에 반해 귀촌은 30대 이하 청년 가구가 43.3% (2021년 귀농·귀촌인 통계, '22.6월)
- (귀농귀촌 이유) 귀농은 자연환경(32.4%), 농업비전·발전가능성(21.0) 순, 귀촌은 농산업 외 직장취업(22.6%), 자연환경(14.1), 정서적 여유(13.2) 순
 - 귀농의 경우, 30대 이하 청년층은 농업 비전·발전 가능성(33.4%), 가업 승계(24.0), 자연환경(18.3) 순이나, 50대 이상은 모두 자연환경이 1순위
 - 귀촌은 청년층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34.7%)이 1순위이나, 50대 이상은 정서적인 여유(19.4%), 자연환경(18.3) 순
- (준비기간) 귀농 준비*에 평균 24.5개월** 소요, 귀촌은 15.7개월
 - * 주요활동 : (귀농) 정착지역 탐색(45.1%) > 주거·농지 탐색(34.0) > 자금조달(10.3) > 귀농교육체험(10.0) / (귀촌) 주거지 확보(40.2%) > 정착지역 탐색(40.0) > 자금조달(10.3)
 - ** 준비기간 감소세 : ('18) 귀농 27.5개월 / 귀촌 21.2 → ('20) 25.8/17.7 → ('22) 24.5/15.7
- (교육) 귀농가구의 50.0%, 귀촌가구는 5.7%가 귀농·귀촌 교육 이수
 - 귀농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농업소득에서 차이를 보이며, 특히 귀농 5년차의 소득은 이수한 경우 2,283만원, 미이수 1,192만원
- (소득) 귀농, 귀촌 5년차의 연 평균 가구소득은 3,206만원, 4,045만원으로, 첫째 2,268만원, 3,521만원 대비 각각 41.4%, 14.9% 증가
 - 귀농가구의 주 재배작목은 논벼(31.8%), 채소(30.4), 과수(15.8)이며*, 주 작목 선택 이유는 재배의 용이성(50.3%), 높은 소득(22.2) 순
 - * 재배작목 : 논벼(31.8%) > 채소(30.4) > 과수(15.8) > 서류(10.5) > 특약용(4.6) > 두류(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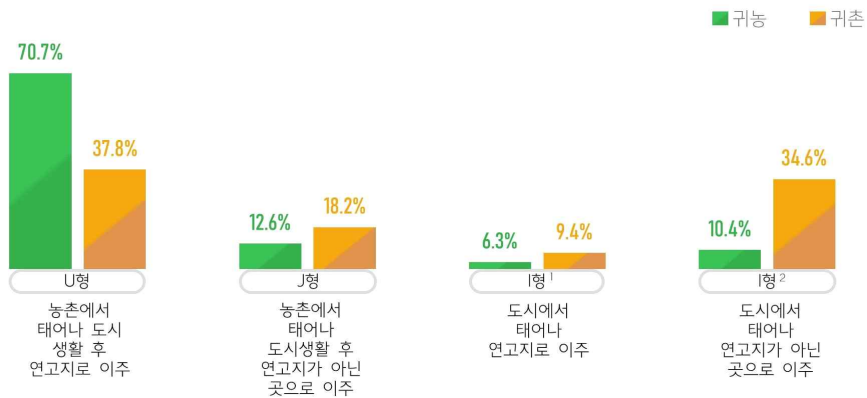
- (경제활동) 귀농 가구의 45.4%가 소득 증가 등을 위해 농업생산 활동 외의 경제활동 수행(농업 임금노동 27.7%, 직장 취업 26.6, 자영업 17.9), 귀촌 가구의 6.1%는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
 - 귀촌 이후 영농 시작시기는 1년 이내가 88.5%로 가장 많았고, 1~2년 이내 9.8%, 2~3년 이내 0.9%로 조사됨
- (지출) 귀농귀촌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귀농 183만원, 귀촌 216만원으로, 귀농귀촌 전 265만원, 258만원과 비교해 각각 30.9%, 16.3% 감소
 - * 지출항목 비중(귀농/귀촌) : 식비(53.5%/57.7%), 주거·광열·수도·전기(28.8%/17.7), 건강·의료(5.9/4.9), 교통통신비(4.5/3.9), 교육비(4.3/10.8), 문화·여가생활비(2.4/4.6)
- (주거) 거주 주택의 종류는 귀농가구의 경우 대부분 단독주택(91.9%), 귀촌은 아파트(40.3%) 및 단독주택(40.1)
 -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귀농 68.8%, 귀촌 53.6%), 전월세(귀농 11.4, 귀촌 39.2), 지원정책 활용(마을 내 빈집 및 귀농인의 집 등 임시거주, 귀농 5.2, 귀촌 1.5) 순
- (지역 융화) 귀농가구의 67.8%, 귀촌가구의 49.8%가 '지역주민과 관계가 좋다'고 응답, '나쁘다'는 응답은 각각 2.3%, 1.9%
 - * '좋지도 나쁘지도 않음'이 귀농 29.9%, 귀촌 48.3% 차지
- 주요 갈등 요인은 귀농은 '마을 공동시설 이용문제'(35.1%), 귀촌은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충돌'(32.6%)로 조사됨
 - * 갈등요인(귀농/귀촌) : 공동시설이용(35.1%/9.8%),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충돌(30.2/32.6), 집·토지 문제(14.3/24.6), 선입견과 텃세(12.5/15.8) 등
- (귀농귀촌 만족도)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귀농 67.2%, 귀촌 67.4%)가 귀농귀촌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했으며, 3가구(30.5%, 30.8%)는 보통, 불만족은 각각 2.3%, 1.8%
- (귀농귀촌 정책)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귀농귀촌 모두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제공(귀농 39.9%, 귀촌 39.8), 자금지원(귀농 농지·시설자금 27.2 / 주택자금 16.0, 귀촌 13.5) 순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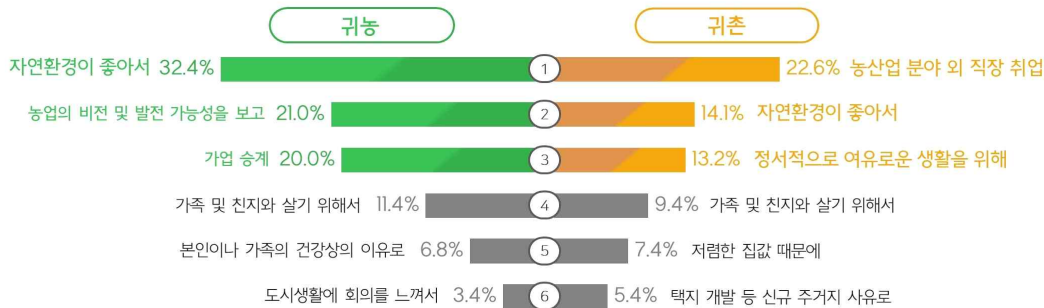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요결과



1 귀농귀촌 유형



2 귀농귀촌 이유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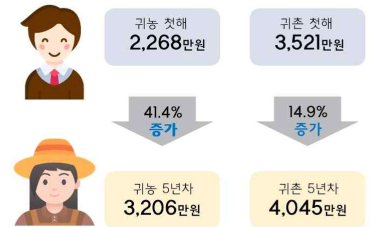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요결과



3 귀농귀촌 가구 소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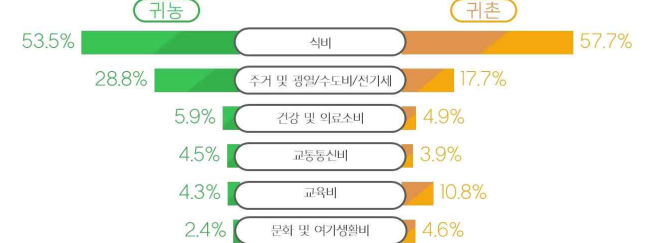
귀농·귀촌 5년차의 가구 소득 변화



월 평균 생활비



지출 항목



4 경제 활동

귀농 가구의 농외 경제활동



농외 경제활동 수행이유



귀촌 가구의 경제활동



귀촌 가구의 경제활동 종류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요결과



5 귀농가구 주소득 작목

주소득 작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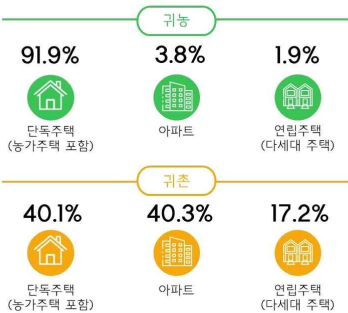


선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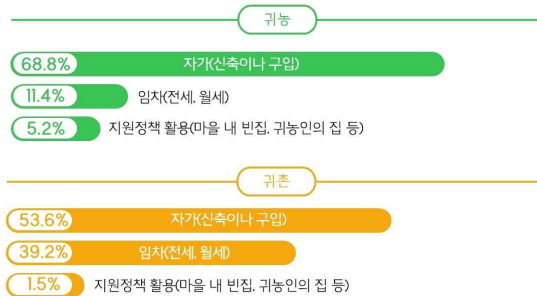


6 주거

거주 주택 종류



주택 점유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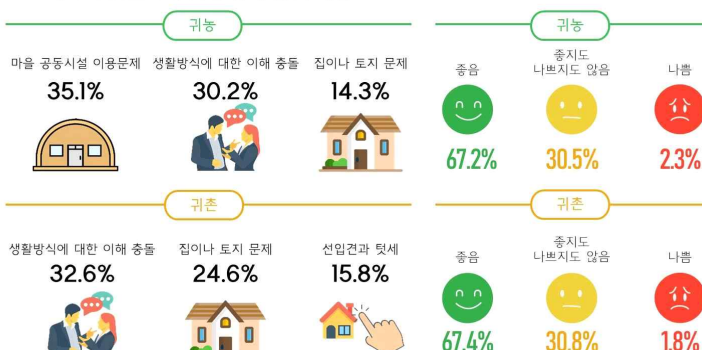


7 지역 융화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좋지 않은 이유



8 귀농귀촌 만족도

